

회차 도입 — 달러 가치를 알아야 환율도 보인다

- 정리 2026-05-10



회차 도입 — 달러 가치를 알아야 환율도 보인다

Part 2-1강은 **금리 신호등 불복**, 2강은 **40년 저물가 시대 종언**(기대 인플레이 축)을 다뤘다. 3강은 **달러 가치의 미래** — 환율 결정 메커니즘 + 강달러 시대의 역사적 평행이론을 본격 분석한다.

회차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 **우리는 두 개의 환율을 각각 알아야 한다**. 달러 가치의 미래(세계 기축 통화의 장기적 쇠퇴 압력)와 원화 가치의 미래(한국 구조적 문제로 인한 약세 압력)는 서로 작동 원리가 다르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원 환율이 오를 때가 많았다**.

1.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으면 미래에 얼마나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나?

기간	핵심 요인
장기	생산성 향상 속도와 성장 잠재력
중기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신뢰
단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1.1 장기 환율 핵심 — 그 나라의 주가(Stock Price)다

성장 가치주의 주가는 계속 오르지만	성장판이 닫힌 나라의 주가는 하락한다
---------------------	----------------------

= 통화 가치 상승

= 통화 가치 하락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며 무역 적자 누적 → 달러 가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그 패턴을 잘 보여준다.

2. 달러 가치의 미래 — 패권 구도 변화

변수	확률
달러의 약화	매우 높음
달러의 몰락	미지수
위안화의 부상	미지수

페트로 달러 이론은 1973년 OPEC과의 합의로 형성된 시스템이다. 산유국에 싸게 팔린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받게 한 합의가 강달러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페트로 달러 이론만으로는 강한 달러를 무한정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 — 트럼프의 15,300조 원 미국 부채 + 미국 자체의 신용 위험이 누적된다. 4~5세기 전 패권 통화의 한계점을 보면 영국·네덜란드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과 통화 시스템의 중심이 변경되어 왔다. 17세기 네덜란드 골덴이 가장 명확한 사례다.

3. 패권 통화 평행이론 — 네덜란드 골덴

3.1 1434~1609 — 골덴의 시작과 신용화폐 탄생

골덴(Gulden)은 네덜란드어로 황금. 1434년부터 네덜란드에서 금화·은화가 공식 사용됐지만, 상인들이 금을 조금씩 깎아내는(Cliping) 행위로 신뢰가 하락했다. 이 신뢰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7개 도시(암스테르담 등)가 함께 모여 **1609년 혁명적인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했다. 무게를 정확히 재서 보관하고 그 가치만큼 장부에 기록하는 시스템 —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부 통화 발행 시스템 중 하나**가 탄생했다. 이를 통해 신용화폐 **뱅크 골덴(Bank gulden 또는 Banco)**이 등장했다.

3.2 1609~1709 — 100년 신뢰 + 5~10% 프리미엄

-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부 통화였던 골덴이 - 실물 금화보다 **5~10% 비싸게 거래**될 정도로 신뢰 프리미엄 - → "신뢰의 발아 올린 기적"

3.3 17세기말 — 비밀 명령과 사기극의 서막

네덜란드 국유자 기율자 동인도 회사가 심각한 적자에 빠졌고, 사장이 암스테르담 은행장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다 — "동인도 회사가 망하면 시가 망한다 — 금고 돈을 몰래 빌려달라". 100% 실물 금·은 담보 시스템에 결정적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다.

3.4 가발 시대(Pruikentijd) — 가짜 돈으로 즐긴 100년 호황

- 1662년 렘브란트 (직물제조업자 길드 이사들의 근검함) - 17세기말 라르칼리에르 (가발 남자들의 초상, 수천만원~억대 가발) - 강한 골덴으로 다른 나라 물건 빠르게 사서 흥청망청 소비

3.5 더욱 대담해진 사기극 + 베센트 평행

> 유사 사례: **2026년 1월 베센트 '강한 달러 지속 유지' 선언**

가짜 돈을 찍기 시작한 뒤 암스테르담 은행은 통화 가치 하락 방어에 적극 개입했다 — 은행 금고에 금이 없다는 사실이 들켰까봐 도둑이 제발 저런 격이다. 강硬的 결정적 평행을 짚는다 — **2026년 1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 지속 유지' 선언이 17세기 암스테르담 은행 비밀 정부 조작과 정확히 동일한 패턴**이다. † 1

뱅크 골덴 실물보다 4~5%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고, 인위적 개입(실물 금·은 매입)으로 강한 골덴을 유지하면서 은행 금고는 점점 텅텅 비어갔다.

3.6 강한 통화의 역설 — 제조업 몰락

- 네덜란드산 모직물·선박 가격 지나치게 상승 - 기술자들 영국으로 대이주 → **영국 산업혁명의 초석** - 비밀 정부 조작으로 거짓 강세 유지 → 제조업 거덜 - 강한 골덴으로 흥청망청 → 결국 몰락의 길

3.7 1780년 영국-네덜란드 전쟁 — 신뢰 폭락

- 영국 해상 봉쇄 → 은행에 은화 없다는 소문 삼삼간 확산 - 암스테르담 은행이 뱅크 골덴을 실물 은화로 바꾸려는 걸 중단 - 뱅크 골덴 가치 폭락 → 네덜란드 시대 종언

3.8 1795년 나폴레옹 침공 — 금고 열림

- 암스테르담 은행 금고 열자 실물 금·은 거의 없었음 - '뱅크골덴은 사기다' 인식 본격 확산 - 네덜란드의 산소호흡기까지 제거

4. 암스테르담 은행 vs 美 연준 4축 평행이론

시대	17세기 암스테르담 은행	21세기 미국 연준
위기 대상	17세기 파산 직전 동인도 회사	2008년 파산 직전 월가
조작 방식	'비밀 대출' 고전적 정부 조작	양적완화라는 신종 정부 조작
화폐 종류	뱅크 하나로 '가짜 금' 창조	클릭 한번에 무제한 달러 복사
시대 차이	강한 골덴에 의해 '가발'을 쓰다	강달러에 의해 '파티'를 열다

5.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 가발 시대 vs 금고 열리기 직전

지금 21세기 강달러 시대는 17세기 네덜란드의 가발 시대를 연상시킨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강한 달러로 미국이 흥청망청 소비하고 있는 모습은 정확히 17세기 네덜란드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결국 금고가 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다.

6. 금고의 비밀이 들통나는 3 예고

6.1 ① 내부자들의 대탈출

시대	사례
1790년 대저위	귀족들이 은 식기·금 장신구 사재기 / 상인들이 골덴 대신 요구불 / 미술품 줄선 정보 누렸던 서민들
현대	중국·러시아·폴란드·인도 등 중앙은행이 달러 → 금 사재기 (한국은 예외)

회차 시점 직후 데이터로 보면 이 흐름이 본격화 중이다 — **폴란드는 2026년 최대 금 매입국으로 20톤+ 추가**(700톤 목표), 중국 PBOC는 2026년 2월 25톤 추가(누적 2,257톤, 18개월 연속 매입), 인도 RBI는 같은 달 18톤 추가(누적 822톤). WGC 2026년 전망 850톤. **68% 중앙은행이 2026년 금 비축 ↑ 응답**(2025년 62%에서 상승). 강의 \$ 내부자 대탈출 메시지가 2026 시점 데이터로 정확히 검증된다. † 2

6.2 ② 경제학 교과서가 찢어지고 있다

과거 정상적 시장	지금 벌어지는 기현상
금리 인상 = 금값 하락	실질 금리 급등 + 금값 폭등
"이자를 주는 금에 돈이 몰림"	"역사상 유례없는 동반 상승, 교과서적인 경제 법칙의 붕괴"

> 시장의 외침: "이자는 필요 없다, 원금이나 돌려달라!"

달러 시스템(은행)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 — 골덴과 유사.

6.3 ③ 시장의 반란 — 연준도 금리를 못 말린다

- **마지노선 5%의 공포** — 미국 국제 금리 5% 돌파 = 미국 정부 이자 비용 폭발 / 국방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냉전의 제국' 인증 - **통제권 상실 (Loss of Control)** — 연준이 금리를 내려고 시장 금리는 폭등 - **1780년의 금리 폭등** — 네덜란드도 신뢰 잃자 국제 금리 2배 폭등

7. 금고의 비밀이 들통나는 3 트리거

7.1 ① 최후의 신호탄 — 금채 경매 실패 (Failed Auction)

> "미국 정부의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된 날

단계	내용
1단계 (위기)	미국 국제 쓸아짐 + 옹찰 미달 (수요 부족)
2단계 (악몽)	프라이머리 딜러(JP모건 등) 인수 불가 선언
3단계 (붕괴)	연준 YCC(Yield Curve Control) "결국 내가 다 살게" = 달러 가치 폭락

7.2 ② 최후의 신호탄 — 금 거래소 '실물 인도 거부 (Default)'

- COMEX(선물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현금 정산 NO, 실물 금'으로 대규모 요구 - 거래소 재고 바닥 → '실물 인도 일시 중단' 선언 - → **이중 가격 출현** (선물 \$2,500 / 실물 \$5,000)

회차 시점 직후 데이터로 보면 이 시나리오가 은(silver)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다 — **2026년 3월 COMEX 은 실물 인도 default 가능성 경고** (Bill Holter). 1월 신청량 40Moz(평소 1~2Moz). delivery coverage ratio 13.4%(1온스 deliverable에 7.5 paper claims). 다만 contrasting view — 대부분 settled or rolled. † 3

7.3 ③ 최후의 신호탄 — 페트로 달러 독점 붕괴

- '독점(Exclusivity)'의 공식 종료 - 사우디: "달러도 받지만, 위안화나 금으로도 결제하세요" (빙장 풀림) - OPEC이 유가를 '복수 통화 바스켓' 기준으로 고시 시작

회차 시점 직후 데이터로 직접 검증 — **사우디·중국 \$7B 통화 스왑 협정 + 2026년 3월 마지막 주 인도 정유사 러시아 원유를 위안화·UAE 디르함으로 결제**(달러 우회) + **이란이 위안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시작 + 사우디 BRICS 가입 진행 중**. † 4

8. 달러 '가발의 시대'가 끝날 때 — 에브리씽 렐리 (Crack-up Boom, Dying Phase)

> 돈 가치가 떨어지니 뭐든 사야 한다

자산	결과
미국 주식	상승
금 & 은 (God's Money)	상승
신홍국 주식	상승
부동산	상승
원자재	상승

붕괴 직전의 화려함 — 가발 시대 후반부와 정확히 동일한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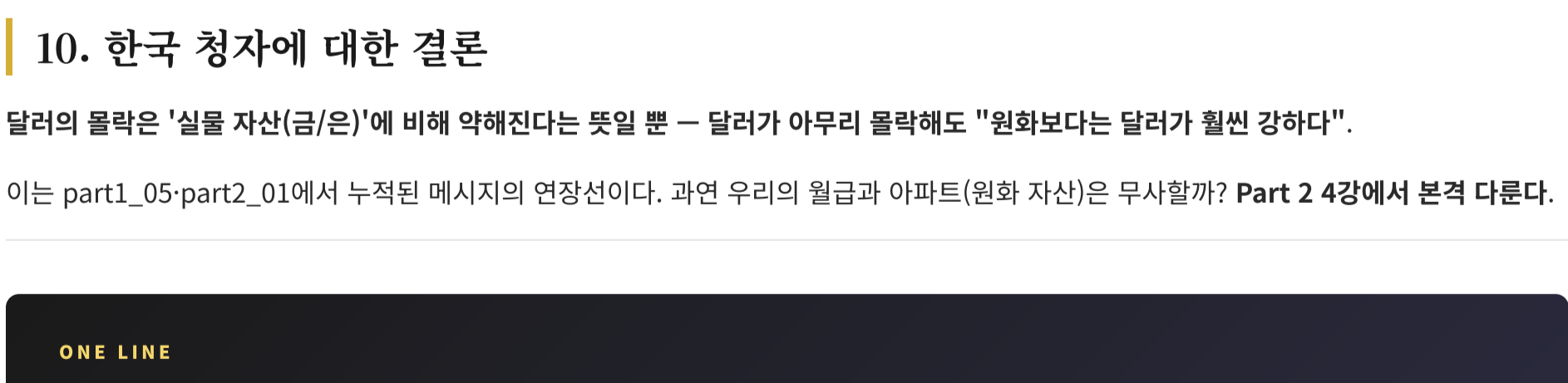
9. 달러 '가발의 시대'가 끝난 뒤 — 도미노 붕괴 + 옥석 가리기 (Death Phase)

자산	결과
미국 주식	독점 빅테크만 생존 (나머지 몰락)
금 & 은	금의 압도적 우위
원자재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전략 자산화
국제	미국 국제마저 신뢰도 몰락
신홍국 주식	대부분 몰락
부동산	거래의 실종 + 부동산 함정

10. 한국 청자에 대한 결론

달러의 몰락은 '실물 자산(금/은)'에 비해 약해진다는 뜻이 **뿐** — 달러가 아무리 몰락해도 "원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강하다".

이는 part1_05-part2_01에서 누적이된 메시지의 연장선이다. 과연 우리의 월급과 아파트(원화 자산)은 무사할까? **Part 2 4강에서 본격 다룬다**.



ONE LINE
달러는 무너진다 — 그러나 원화보다는 달러가 여전히 훨씬 강하다.



회차 자료 보강
본 회차의 핵심 메시지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기 위해 외부 4건을 인용했다. 검증·반박 / 시건 연장 / 사례 후속 패러다임으로 매핑된다.
† 1 검증 — 베센트 2026-01 '강한 달러 정책' 직접 발언 회차의 핵심 평행이론 " 2026년 1월 베센트 강한 달러 지속 유지 선언 "의 외부 데이터 검증. Bloomberg와 CNBC가 보도한 2026년 1월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발언 — "The U.S. always has a strong dollar policy, but a strong dollar policy means setting the right fundamentals" / "If we have sound policies, the money will flow in" / "We are bringing down our trade deficits, so automatically that should lead to more dollar strength over time". 트럼프의 코멘트로 달러가 4년 최저로 떨어진 다음 날 베센트가 즉각 강한 달러 정책을 강조한 패턴 — 17세기 암스테르담 은행이 통화 가치 하락 방어에 적극 개입한 패턴과 정확히 동일. 회차의 평행이론이 외부 데이터로 정확히 확인됨. - Bloomberg, "Bessent Touts a Strong Dollar After Trump Brushed Off its Drop" (2026-01-28) - CNBC, "Scott Bessent shuts down report of potential U.S. currency market intervention; U.S. dollar rebounds" (2026-01-28) - Reuters via Investing.com, "Bessent says US has strong dollar policy, 'absolutely not' intervening to support yen"
† 2 시간 연장 — 내부자 대탈출, 2026 정량 검증 회차 § 6.1 '내부자들의 대탈출' — 중국·러시아·폴란드·인도 중앙은행 금 사재기'의 회차 시점 정량 검증. 2026년 데이터: 폴란드는 최대 금 매입국으로 20톤+ 추가 (700톤 목표, NATO 등부 안보 우려). 중국 PBOC 2026-02 25톤 추가 (누적 2,257톤, 18개월 연속 매입), 인도 RBI 같은 달 18톤 추가 (누적 822톤). WGC 2026년 매입 전망 850톤. 68% 중앙은행이 2026년 금 비축 ↑ 응답 (2025년 62% → 상승). 회차의 내부자 대탈출 메시지가 2026 시점 정량 데이터로 정확히 검증. - Visual Capitalist, "Ranked: Central Banks Buying and Selling Gold in 2026" - World Gold Council, "Central Bank Gold Statistics: Central banks stay course on gold in February" (2026-04) - OnlineGold.org, "Central Banks Added 1,200 Tonnes in 2025 — What It Means for Gold in 2026"
† 3 시간 연장 — COMEX 실물 인도 위기 신호 회차 § 7.2 'COMEX 실물 인도 거부' 시나리오의 회차 시점 직후 검증. Bill Holter 등 정밀 분석가들이 2026년 3월 COMEX 은 실물 인도 default 가능성 경고 . 1월 (통상 비-deliveries 필) 신청량 40Moz(평소 1~2Moz의 20~40배)로 기록적. 3월 70~80Moz 도달 전망. 2026년 4월 중순 기준 COMEX registered 은 76.8Moz vs open interest 575.5Moz → delivery coverage ratio 13.4% (1온스 deliverable에 7.5 paper claims). 다만 contrasting view — 대부분 contracts settled or rolled before delivery. 회차의 종이 vs 실물 시나리오가 은 시장에서 먼저 신호를 보냄. - Discovery Alert, "COMEX Silver Default Risk: March 2026 Crisis Analysis" - KuCoin, "Analyst Warns of COMEX Silver Delivery Crisis in March 2026" - National Gold Group, "Silver Supply 2026 - Why COMEX Vaults Are Running Out Of Metal"
† 4 사례 후속 — 페트로 달러 독점 붕괴, 회차 시점 직접 검증 회차 § 7.3 '페트로 달러 독점 붕괴' — 사우디 빙장 풀림 + OPEC 복수 통화 바스켓'의 회차 시점 직접 검증. 사우디·중국 \$7B 통화 스왑 협정 + 2026년 3월 마지막 주 인도 정유사 러시아 원유를 위안화·UAE 디르함으로 결제 (달러 우회 본격화) + 이란이 위안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시작 + 사우디 BRICS 가입 진행 중 . mBridge 프로젝트(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ross-border 결제)에 사우디 동참. 회차의 페트로 달러 독점 붕괴 메시지가 2026 시점 직접 사례로 검증. - Atlantic Council, "Is the end of the petrodollar near?" - Modern Diplomacy, "The Rise of the Petroyan: Is the US Dollar Losing Its Energy Monopoly?" - TechCoin, "De-Dollarization 2026: BRICS Oil Trade, Hormuz Yuan Toll"
> 본 정리본은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Part 2 — 시장을 읽는 눈, 3강 「달러 가치의 미래」(2026-02-19 게시) 정규강의 정리를 베이스로 작성했다. 외부 자료는 † 1~† 4로 표기한 회차 자료 보강을 통해 강의 본문과 시각적으로 구분된다. 본 회차의 메시지는 골덴 평행이론 + 3 예고 + 3 트리거 모니터링 불복 — 매월 들어다볼 신호 도구 —이며, 직접적인 매수·매도 권유를 강제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